SK, 2006년 수익성도 “강세 지속”

1/4분기 영업이익 3385억원으로 상향조정 … 고유가로 정제마진 개선

SK가 예상치에 비해 양호한 1/4분기 수익실적을 기록해 강세를 나타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고유가와 정유업종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SK의 수익성이 2008년까지 개선추세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는 4월10일 장중 6만81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상승폭이 다소 줄어 전일대비 2.28% 오른 6만7300원에 장을 마쳤다.

SK증권은 SK의 1/4분기 영업이익이 341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2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권일 SK증권 애널리스트는 “2005년 1/4분기 석유화학 경기가 정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06년 1/4분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SK에 대한 수익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7개 증권사의 1/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의 평균은 3385억원으로 상향조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권일 애널리스트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초까지 부진하던 정제마진이 3월 들어 급격히 개선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두바이(Dubai)유는 최근 배럴당 60달러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WTI(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도 67달러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정유업종 호황을 근거로 SK의 실적에 향후에도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메리츠증권은 정유설비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유업종 호황이 200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의 적정주가를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4월10일 상향조정했다.

유영국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고유가의 장기화와 배당 원유증가로 석유개발 이익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 둔화에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K는 고수익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석유개발사업은 2009년 SK의 주력사업으로 부상해 연간 5000억원대 영업이익을 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권일 애널리스트도 “정유업황이 2008년까지 호황을 유지하는 가운데 석유 개발사업 이익이 SK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정유업황이 급격히 개선되기보다는 연간 순이익이 10%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서서히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연합뉴스-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12>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